

‘5·18 폼훼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 “중도층 영향 미칠 듯”

한동훈, 공천 취소 가능성 시사에
홍준표·신평 등 보수성향 인사 반발
경선 선출·반성 고려… 유지 결정
중도층 많은 수도권 후보들에 악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과거 5·18민주화운동을 폼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예비후보(대구 중·남구)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4·10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12일) 격론 끝에 도 후보에 대한 공천 결정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 후보는 지난 2일 재선 도전에 나섰던 임병헌 의원을 경선 결선에서 누르고 승리했다. 하지만 과거 5·18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등을 주장한 것이 드러나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공관위에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

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도 변호사 공천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평 변호사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이 공천 재검토 방침을 비판했고, 대구지역 보수단체들

도 도 후보의 공천 재검토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결국 공관위는 도 후보가 밝힌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해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공직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도태우 후보는 공관위의 공천 유지 결정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면서 “앞으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약속했다.

공관위는 도 후보가 경선 끝에 선출된 데다가, 반성의 뜻을 밝힌 점을 고려해 공천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발언에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도태우 후보가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결선까지 가면서 힘들게 물리치고 왔다. 그

리고 그 이후에 두 번의 사과를 하고, 지금 변화된 본인의 입장까지도 밝혔다”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제2차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동훈 위원장은 꽤 멋있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된 것은 오히려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김부겸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로 우리 공동체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라며 “합의를 존중하고 갈등과 분열 조장하거나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가 때문에 공천을 유지한다는 것은 공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도 후보 공천 유지가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TK 등 핵심 지지층을

의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도, 중도층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도층이 가장 많은 수도권 후보들에게는 악재라는 지적이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여야가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대구에서는 도 후보가 당선될 수 있어도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광주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도 후보를 공천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다. 기존 ‘김기현 체제’에서 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이나 국민의힘에서 발생하는 다른 발언들과 함께 하나 하나 쌓여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류삼영 후보, 국가 위해 치열하게 싸우신 분”

이재명, 이틀 연속 ‘서울 동작을’ 유세
나경원, 여론조사서 10%p 이상 앞서
류 “동작을 무너지면 尹 독재 합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의 영입인재인 류삼영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을 찾아 류 후보에 힘을 보탰다. 전날(12일)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있는 남성 사계시장을 깜짝 방문해 류삼영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한 바 있는 이 대표가 이틀 연속 동작구를 찾는 이유는 지역 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서울 동작을은 4선에다가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나경원 후보가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곳이다. 나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으나, 22대 총선에서 동작을 재탈환을 노린다.

또한 나 후보는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상당한 인지도와 무게감을 자랑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역인 이수진 의원을 공천 배제하고 행

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총경회의의 소집을 주도했던 경찰 간부 출신 류삼영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최근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에서 나경원 후보가 류삼영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가 문화방송(MBC)의 의뢰를 받고 지난 10~11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중 서울 동작을 선거구 거주 유권자 500명을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원회 누리집 참고)에 따르면, 나 후보는 50%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류 후보는 37%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을은 이번 서울 판세에서 중요한 ‘한강 벨트’에 속해 있어 여야가 모두 공을 들이는 곳인데, 나 후보의 기세가 치고 올라오자 민주당은 미리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류 전 총경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류 후보는 용기와 투쟁의 상징”이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은 가능하지 몰라도, 내가 아닌 국가 모두의 이익을 위

해, 잘못된 질서와 명령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그중에서도 상명하복이 뚜렷한 경찰 아닌가. 그 속에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당사자로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함께 손잡고 싸워서 반드시 국회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삼영 후보도 이 대표와 지지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기겠다”고 화답했다. 류 후보는 “동작을은 수도권 선거의 바로미터”라며 “동작을이 무너지면 서쪽으로, 북쪽으로 붉은 바람이 올라가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합법화하게 된다. 동작을을 지키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 동작을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치혁명으로 구조 바꿀 것… 육아·노후 지원 필요”

인터뷰
신정현 새로운미래 소통본부장

“반복되는 고인물 정치, 구조 문제 새로운미래서 경쟁 환경 만들 것”
부모연금으로 노후불안 해소 제시

신정현 새로운미래 국민소통본부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십수년을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치열한 도전을 앞둔 신 본부장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만났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 본부장은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젊은 나이에 큰 직책을 맡았다. 새로운미래의 본격 창당 이후 책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선대위 체제에선 ‘필라멘트’처럼 정당과 국민을 연결하는 국민소통본부장 직을 맡았다.

◆반복되는 ‘고인물’ 정치, 구조를 바꿔야 새로운미래 보인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새 정당에서 도전을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신정현 본부장은 “저는 청년 정치인이었고, 민주당 안에서 비이재명계였다. 제 상황에서 지역구 선거에 공천을 받거나 이기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식으로 당원들을 모으고 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기존 정치의 레토릭을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했다”며 “새로운미래라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저의 목표는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내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무능하고 민생의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구조를 바꿔내지 못하면 아무리 새 인물을 쏟아부어도 고이고 또

고여서 새로운 물조차 씌어버린다”며 “여전히 양당을 합쳐서 70% 가까운 지지율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이 두 세력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구조를 바꿔내고 정치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서 누가 더 민생, 평화, 경제 문제에 유능하게 대응하는가가 정치 구조에서 판가를 난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아하는 부모의 노후를 국가가 지원해야

신 본부장에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냐고 묻자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꼽았다. 환노위와 여가위는 상임위 중 가장 인기가 없지만, 중복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신 본부장은 관련 상임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입법적 아이디어를 설명하는데 거침 없었다.



신정현 새로운미래 국민소통본부장이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십수년을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치열한 도전을 앞둔 신 본부장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와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만났다.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그는 ‘부모연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부모연금’ 정책은 육아로 인해 경력 이 끊기고 그만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준비에 뒤쳐진 부모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7년의 시간을 보상에

줄 수 있다면 두 아이를 낳는 것으로 했을 때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48만원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가 너무 불안한 것이 저출생의 원인이기도 하다. 48만원 정도의 돈은 미래에 내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 노후가 불안정해진다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박태홍 기자